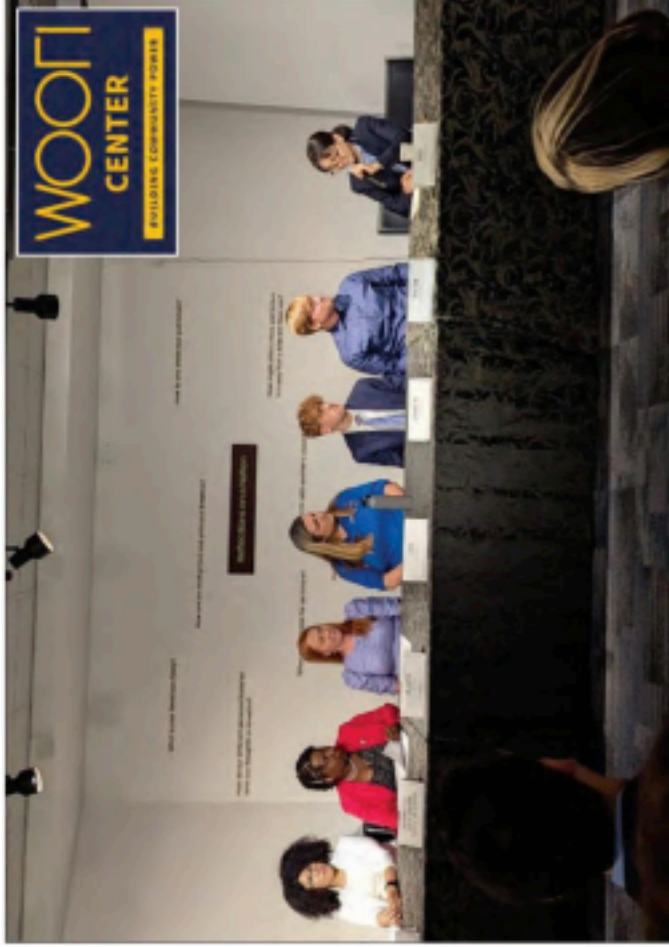


# 우리센터, '공정한 투표 원탁회의'에서 한인 및 아시아계 유권자 대변

지난 8월 13일, 내셔널 리버티 뮤지엄은 "공정한 투표 원탁회의"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조안나 맥클린턴(Joanna McCClinton)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장이 진행하고, 커뮤니티 단체장 및 리더들이 모여 유권자 권리향상의 방안 및 자발적 시민 참여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유권자 권리의 중요성, 소외된 유권자들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맥클린턴 하원의장이 발의한 HB 2369 법안에 담긴 '당일 유권자 등록 및 사전 투표소 투표' 계획이 통과되면, 많은 유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맥클린턴 하원의장은 "자유로운 투표권을 통해 선거구 재조정 등 투명한 투표권 행사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을 없애고 전체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주민들이 일자리 창



8월 13일 (화) 개최된 '공정한 투표 원탁회의'. 오른쪽 이현옥 우리센터 사무국장=우리센터 제공

출, 경제 발전, 건강 관리, 교육 등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배우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각 지역 기반 풀뿌리단체들의 집단적 책임과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센터의 이현옥 사무국장은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잘못된 정보 등 캠페인을 연중 진행한다.

우리센터는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보내기, 가정방문 투표투려, 유권자 등록캠페인, 언어지원 등을 통해 한인 및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자료에 한국어를 포함한 아시아 언어가 제공되도록 카운터와 협력 중이며, 앞으로는 필라델피아 선거자료에 한국어 포함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센터는 지난 6년간 언어와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유권자 지원, 교육,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라델피아에서 800여명의 유권자 등록을 도왔다. 지난 달 몽고메리 카운티 커미셔너 회의에 참석하며 선거 관련 한국어 언어지원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센터를 비롯한 풀뿌리 단체들이 언어지원을 통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당일 유권자 등록과 사전투표를 통해 공정한 선거 시스템의 개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아시아인 커뮤니티의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